

#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과 이 시대의 종결과 주님의 오심

(토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6

##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이자 성경의 최고의 계시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감

성경: 엡 1:17, 22-23, 3:3-5, 9, 고전 12:12, 24-27, 고후 11:28-29, 롬 12:3-5

### I.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이자 성경의 최고의 계시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계시된다 — 엡 1:17, 22-23.

- A.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자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의 영역과 그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하다 — 엡 1:5, 9-11, 22-23, 롬 12:1-2.
- B.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의 영역 안으로 안내해 줄 것이며, 오직 그럴 때에만 몸이 우리의 체험이 될 것이다 — 행 9:1-5, 15, 26:18-19, 엡 1:17-23, 3:3-5, 9, 고전 12:12.
- C.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는 비결은 우리가 기꺼이 그 이상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 마 5:3, 8, 6:22, 시 25:9, 14, 계 3:18.

### II. 시온으로 예표된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몸의 건축을 완결하여, 완결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영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거처인 지성소를 이끌어 온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이 될 것이며, 모든 믿는 이들이 이기는 이들이 될 것이다 — 계 21:1-3, 7, 16, 22.

- A. 시온으로 예표된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로서 교회의 고봉, 중심, 높이 올려짐, 강화됨, 풍성함, 아름다움, 실재이다 — 시 48:2, 11-12, 50:2, 20:2, 53:6상.
- B. 예루살렘(교회)의 특징들과 생명과 축복과 세위짐은 시온(이기는 이들)에게서 온다.
  - 1.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장로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언약궤는 시온에 있었다.
  - 2. 시편 51편 18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기쁨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셨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셨다고 말한다.
  - 3. 시편 102편 21절은 여호와와 이름이 시온에서 선포되고, 그분에 대한 찬양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되었다고 말한다.
  - 4. 시편 128편 5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이 번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 5. 시편 135편 21절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셨지만, 시온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셨다고 말한다.
  - 6. 이사야서 41장 27절에서 말씀은 먼저 시온에 선포되고 그런 후에 예루살렘에 전해졌다.
  - 7. 요엘서 3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실 때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되리라고 말한다.
  - 8. 오늘날 하나님은 패배한 교회 가운데서 십사만 사천 명, 곧 시온산에 서게 될 이들을 찾고 계신다 — 계 14:1-5.

- C. 하나님은 생명의 흐름을 교회에 전달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언제나 소수의 믿는 이들을 사용하신다. 교회를 대표해서 이기는 이들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위치를 취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정복되고 사로잡히고 패배당하고자 하는 자원함을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체험에서 승리자가 되실 수 있다 — 빌 2:13, 고후 2:12-14.
- D. 성경의 예표에 따르면, 온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 하나님-사람들이 이기는 이들이 오늘날의 예루살렘(교회생활) 안에 있는 오늘날의 시온이다 — 히 12:22, 계 14:1-5.
  - 1. 교회생활 안에는 반드시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기는 이들이 오늘날의 시온이다.
  - 2. 시온(이기는 이들)이 없다면, 예루살렘(교회생활)은 지켜지거나 유지될 수 없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이기는 이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시온이 없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러한 교회는 바람 빠진 타이어와 같이 될 것이다.
- E. 주님의 회복은 시온, 곧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이기는 이들을 건축하는 것이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시온에 도달하기를 반드시 힘써야 한다 — 엡 1:22-23, 4:16, 고전 1:2, 12:27, 계 14:1, 21:2, 시 84:5.
- F.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온전하게 된 하나님-사람들이 이기는 이들의 단체적인 생활이다. 그들은 진정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며, 그들의 미덕들을 통해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해 온 이들이다 — 빌 4:5-9.
  - 1. 주님은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는 이기는 이들이 긴급하게 필요하신데, 그들의 하나님-사람의 생활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표현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몸의 실질적인 표현이 없다면, 주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다 — 엡 1:22-23, 4:16, 5:27, 30, 계 19:7.
  - 2.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얻고 그분의 원수를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이기는 이들이 필요하시다. 이기는 이들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를 위해 돌아오실 수 없다 — 엡 1:10, 3:10, 계 12:11, 19:7-9.

**III.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살기 위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 고전 12:24-27, 고후 11:28-29.**

- A. “니 형제님이 몸에 대해 가르칠 때,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회생활 안에서 소요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 44쪽.
- B. 몸 안에는 독립이나 개인주의가 있을 수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체들이고 지체들은 몸에서 떨어져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 고전 12:27, 롬 12:5, 엡 5:30.
- C. 우리의 생활과 함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몸 안에 있고, 몸을 통해 있으며, 몸을 위해 있다. 오늘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개인주의에서 구출해 주시기를 바란다.
- D. 자신이 몸의 지체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몸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지체들을 존중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지체이며, 지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 없이는 살 수도 없다 — 고전 12:15, 21, 23-24, 롬 12:3, 빌 2:29, 고전 16:18, 샬 9:9.

- E.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기능을 갖고 있으며, 모든 기능들은 몸을 위해 있다. 한 지체의 기능은 몸 전체의 기능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모방하거나 다른 지체들의 기능을 탐내서는 안 된다(고전 12:15). 동시에 우리는 자신이 더 낮고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21절). 모든 믿는 이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이고, 모든 믿는 이 하나하나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 F.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에서 바울이 언급한 그 모든 이름들은 바울에게 한 새사람인 몸에 대한 느낌 혹은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 1. 그 모든 이름들은 또한 교회들 가운데 차이점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바울이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쓴 것은 또한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고,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에게 쓴 것은 또한 골로새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교통과 하나와 조화와 친밀한 접촉이 암시되어 있는가!
  - 2. 바울은 두기고에게 자신의 모든 사정을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알려 주라고 당부했는데, 이것은 그가 한 새사람인 몸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 G. 우리 각자가 자신의 분량을 알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것은 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섞이기를 배워야 한다 — 고전 12:15-18, 고후 10:13-14.
- H. 모든 지체는 자기 자신의 역량을 알아야 하며,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이렇게 한다면 질투나 야심이 없을 것이고, 다른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자신도 하려고 하는 욕구도 없을 것이다 — 빌 2:2-4, 롬 12:1-5.
- I. 몸의 계시가 있는 곳마다 몸의 의식이 있으며, 몸의 의식이 있는 곳마다 개인주의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불가능해진다.
  - 1. 몸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최악된 생명과 타고난 생명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생명에서도 구출되어야 한다.
  - 2.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 결과로 죄에서 구출되며, 몸을 본 결과로 개인주의에서 구출된다. 보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몸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 3.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몸의 다른 지체가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몸의 다른 지체가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몸의 다른 지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 고전 12:17-22.
  - 4. 우리가 동료 지체들의 도움을 거절한다면 그리스도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조만간 메마르게 될 것이다. 지체들이 서로 의존하는 것을 통해 온몸이 건축된다 — 고전 12:12.
  - 5. 우리가 메마르고 전진할 길이 없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른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체험했다 — 엡 1:16, 골 1:9, 빌 1:19, 살전 5:25, 살후 3:1, 골 4:3, 히 13:18.

IV.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셨다(고전 12:24). ‘섞다’라는 말은 ‘조절하다’, ‘조화되게 하다’, ‘고르게 하다’, ‘연합시키다’를 의미하며, 차이점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함축한다. 섞임의 목적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 A. 우리는 목표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이끌리기 위해 절차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 B. 하나님의 경륜을 참으로 실행적이고 실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님의 회복의 최고봉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방식으로 많은 지방에 교회들을 산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유기체인 유기적인 한 몸을 산출하시는 것이다.
- C. 교회가 한 떡이라는 바울의 사상(고전 10:17)은 그 자신이 고안해 낸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그것은 소제물에 관한 구약의 말씀에서 취한 것이었다(레 2:4). 소제물의 고운 가루의 모든 부분이 기름과 연합되었다. 이것이 섞임이다.
- D. 섞임은 매우 높고 깊을 뿐 아니라 매우 비밀하기 때문에 누구도 좀처럼 섞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섞임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섞임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 E.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섞이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존재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 F. 섞임은 다른 이들과 교통하기 위해 항상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식을 갖고 그리스도의 몸의 섞임과 실제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다른 성도들과 교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통이 우리를 조절하고, 교통이 우리를 조화시키며, 교통이 우리를 고르게 하고, 교통이 우리를 연합시키기 때문이다.
- G. 동역자는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다른 동역자들과 교통해야 한다. 장로는 다른 장로들과 교통해야 한다. 교회생활이나 주님의 일에서 동역할 때 우리 모두는 교통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 H. 한 무리의 책임 형제들이 자주 함께 모이지만 섞이지 않을 수 있다. 섞이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무엇이든 그 영에 의해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우리를 만지고 우리도 다른 이들을 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I. 이러한 섞임은 사교적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체들과 권역의 교회들과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누리고 체험하고 참여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섞임이다.
- J. 섞임이 몸이고, 섞임이 하나이며, 섞임이 한마음 한뜻이다.
- K. 섞임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표(엡 3:8-10, 1:9-10)인 새 예루살렘(계 21:2)을 완결하도록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엡 1:23)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